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 연구

임 난 영¹⁾ · 송 정 희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상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간호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보건의료전문인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지식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간호사로서 간호실무 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능력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인의 수행능력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 실제 직업인이 되었을 때 일상 수행하는 일, 즉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역할 내용이 수행능력이 되어야 하며(Lee, 2005). 이러한 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활동에는 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간호 상황에서 학생들이 간호학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Lee & Kim, 1999).

간호사 국가고시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이 간호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면허를 주기 위한 제도이며, 임상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최종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간호과학회는(Kim et al., 1998에 인용됨) 간호사 국가고시가 국가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평가함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국가고시는 임상실무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임상에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고시는 지식중심의 지필고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동안 국가고시 문제의 질을 높이고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그러나, 지필고사의 한계는 이러한 유형의 시험에 대비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임상에서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론적 지식만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Ahn, 1997), 실제적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른 보건의료전문인에서도 인식되어져 이에 응급구조사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서는 임상실기시험 제도를 국가고시에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환자의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되었고 그 효과들이 검증되어 왔다. Kim, Lee, Ahn과 Park(2001)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주요어 : 델파이 조사, 간호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sjh1994@hanmail.net)
투고일: 2007년 3월 7일 심사완료일: 2007년 4월 17일

임상의학입문 평가를 위한 객관적 임상실기시험(OSCE)이 향후 임상실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의사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데 임상수기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7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였으며, 임상실습 후에 유사한 시험을 보거나 의사 국가고시에서 객관적 임상실기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수 정도의 학생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임상실기시험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임상실기시험이 졸업 후 의사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73.1%로 나타나(Kim et al., 2002) 실기시험이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만, 역으로 실기시험을 통해 임상실습의 효율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적용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타 보건의료전문인에서의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국가고시에서의 변화와 발전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질적인 간호제공에 대한 요구의 증가, 독립적 간호수행을 제공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내의 부단한 노력 등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접 간호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및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간호사 국가고시가 간호사의 기본수행능력을 평가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간호사 기본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간호사실기시험 도입의 타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현 임상실습교육,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현 국가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규명한다.
- 간호사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제도 도입 타당성을 알아보기로 시도한 델파이 조사연구이다. 델파이 방법은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리와 시간상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델파이 방법을 위해서는 우선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선정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폐쇄형 질문지를 만들고 전문가들에게 이 폐쇄형 설문지를 사용해 주요문항을 선택하게 하여 항목별 득수 등을 제시한다. 이후 반복하여 중요문항을 선정하게 되고 최종 합의를 찾으면 그 결과를 보고한다(Lee, Lim, & Park, 1998).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학에 재직 중이며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가와 병원의 간호사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육과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 1차 델파이 조사

조사 대상은 전국 500병상 이상의 병원 144곳의 간호사 실무교육 담당부서장과 3-4년제 간호대학 106개교의 학과장에게 현장 임상실습의 문제점, 입사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현행국가고시의 문제점과 대안,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 도입여부와 이유에 관한 개방식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144개 병원에서 59부(40.97%), 106개 대학에서 31부(29.25%)로 총 90부(36%)가 수거되었다. 이와 같이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병원의 간호사 실무교육 담당부서장 중 간호학과 실습생 교육에 직접 담당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2차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얻어진 내용을 본 연구진의 토의를 거쳐 분류한 설문지를 1차 델파이 설문에 답변한 총 73곳의 병원 및 대학 중 응답에 불성실하였던 대학 1곳을 제외한 72곳에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총 65부(응답률 90.3%)였다.

● 3차 델파이 조사

1·2차 델파이 조사결과 얻어진 내용에 대해서 간호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육전문가

5인과 500명상 이상의 3차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재직 중인 임상전문가 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이 방학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호대학 교육전문가에 대한 응답율이 다소 낮아진 결과 간호대학교수의 전체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료분석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진의 토의를 거쳐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결과 처리하였으며,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으로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해 배부된 설문지 중 수거된 설문지는 총 65부였으며 5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 실무교육 담당부서장 39명(60.0%), 4년제 대학교의 간호대학(간호학과)에서 13부(20.0%), 3년제 대학 간호과에서 12부(18.5%), 무기명으로 응답한 1부(1.5%)를 포함한 총 65부였다. 간호사 실무교육 담당부서장 중 팀장은 5명(12.8%), 과장은 11명(28.2%)이었으며 이는 모두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육담당자로 나타났다. 수간호사는 20명(51.3%), 무기명으로 응답한 사람이 3명(7.7%)이었다. 간호대학에서 재직중인 학과장의 경우 교수가 8명(32.0%), 부교수가 16명(64.0%), 무기명이 1명(4.0%)으로 나타났다. 3차 델파이 조사에는 간호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전문가 5인(50%)과 500명상 이상의 3차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임상전문가 5인(50%)

<Table 1> Problems in the clinical practicum

Contents	Result of the 2nd Delphi		Ranking of the 3rd Delphi
	Mean±SD	Ranking	
Lack of opportunities for direct nursing care	3.45±.56	2	1
Developing full time clinical instructor system	3.54±.62	1	2
Gap in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and clinical setting in the hospital	3.31±.56	5	3
Lack of personnel to teach in the clinical practicum	3.31±.64	4	4
Difficulty of qualitative clinical practicum	3.27±.65	6	5
Practicum is observation centered because of care by formal care givers	3.23±.61	8	6
Lack of knowledge about medical terminology, names of drugs, how to operate machines and other technical matters	3.14±.61	11	7
Difficulty for professors in teaching in clinical settings	3.27±.54	7	8
Absence of integrated manual in clinical settings	2.92±.74	18	8
Lack of conference rooms and locker room facilities for students in the clinical setting	3.17±.65	9	10
Patients' refusal of nursing care by student nurses	2.95±.74	17	10
Schedule in clinical practicum incongruent with educational content	3.38±.68	3	12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clinical practicum	3.14±.58	12	12
Difficulty in securing practice settings for clinical practicum	3.12±.82	13	14
Lack of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3.12±.63	14	15
Difficulty in adapting to changing medical service setting	2.86±.64	22	15
Case oriented practicum (Required to submit reports etc.)	3.05±.69	15	17
Lack of facilities for application of direct nursing practice in colleges	3.03±.66	16	18
Negligence of practicum because of preparation for national examination for licensure in colleges	2.64±.70	26	19
Preparation for clinical practice	2.92±.64	19	20
Problem of legal protection during clinical training	3.15±.67	10	21
Lack of quality and competency of clinical instructors	2.83±.65	23	21
Tendency to exploit student nurses as work force	2.89±.84	21	23
Difficulty of evaluation in clinical education	2.83±.63	24	24
Lack of concern about practicum in school and hospital	2.74±.82	25	25
Lack of experience in working 3 shift	2.91±.72	20	26
Lack of quality and education for student nurses on human nature	2.63±.78	27	27
Role ambiguity of head nurse in clinical education	2.63±.65	28	28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

현재 간호학 대학교육 중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표는 <Table 1>과 같다.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은 총 5점 중 평균 3.04±.33로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현 임상실습에는 전담 교수제도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상전담 교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직접 실습경험기회의 부족, 강의 내용 및 진도와 맞지 않는 실습장소로 인한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 델파이 결과 직접실습경험기회의 부족이 임상실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임상전담 교수제도의 부재, 학교교육과 임상실제와의 괴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간호사(입사 1년 미만 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표는 <Table 2>와 같다. 2차 델파이 결과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은 총 5점 중 평균 3.01±.39로 나타났으며, 임상상황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대처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부족, 용어·약물·기계 사용법 등에 대한 지식 부족, 환자 간호 기술 및 숙련성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3차 델파이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임상상황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대처 능력, 의사결정 능력 부족, 환자간호기술 및 숙련성 부족의 순으로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

<Table 2> Problems for novice nurses in performing job duties

Contents	Result of the 2nd Delphi		Ranking of the 3rd Delphi
	Mean ±SD	Ranking	
Lack of integrated problem solving ability regarding clinical situation	3.57±.50	1	1
Lack of ability in coping and decision making	3.43±.50	2	2
Lack of nursing skills and competency	3.34±.51	4	2
Lack of the knowledge regarding medical terminology, names of the drugs and how to operate machines	3.35±.54	3	4
Fear of the unknown situations	3.17±.52	6	5
Difficulty in the independent nursing care because of insufficient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um	3.25±.56	5	6
Discouragement by gap between practicum in school and clinical situation	3.16±.57	7	7
Lack of attitudes and values of nurses	2.83±.76	10	8
Lack of self confidence	3.15±.62	8	9
Lack of professional ethics and responsibility	2.89±.79	9	10
Lack of physical strength and endurance	2.83±.67	11	11
Lack of manners	2.48±.66	12	11
Lack of quality and personality of nurses as educators for novice nurses	2.30±.58	14	13
Insufficiency of orientation, educational content and educational method for novice nurses	2.43±.61	13	14

<Table 3> Problem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Contents	Result of the 2nd Delphi		Ranking of the 3rd Delphi
	Mean ±SD	Ranking	
Examination questions that can be solved by simple memorization	3.28±.60	1	1
Lack of questions to evaluate clinical competency	3.28±.49	2	2
Lack of items of questions requiring problem solving skills	3.25±.50	3	3
Lack of application to the clinical situation	3.14±.64	4	4
Examination question in textbook inconsistent with clinical situation	3.14±.61	5	5
Lack of discriminating power in examination questions	2.92±.63	7	6
Examination questions as an objective test	2.91±.71	8	7
Late timing of national examination	3.08±.85	6	8
Lack of test questions about nursing diagnosis and intervention	2.86±.56	9	9
Decrease in quality according to high rate passing	2.53±.73	10	10
Burden of examination only being held once a year	2.46±.69	11	11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을 분석한 표는 <Table 3>과 같다.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현행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은 전체 평균 2.98±.34로 나타났으며, 2·3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행 간호사 국가고시가 암기 위주의 시험이라는 것과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문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형 문항의 부족, 임상에서의 활용도 결여, 현 의료상황에 맞지 않는 교과서 위주의 시험문제 출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고시 문제점의 해결대안

국가고시 문제점의 해결대안을 분석한 표는 <Table 4>와 같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행 국가고시 문제점의 해결대안의 전체 평균은 3.31±.33으로 나타났으며, 시험관련 대안은 평균 3.21±.32, 교육과정 관련 대안은 평균 3.39±.42로 나타났다. 2·3차 델파이 조사결과 시험관련 문항 중에서 임상실무와 밀접한 시험문제를 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합적인 평가의 필요, 통합교과문제의 출제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관련대안은 학교에서의 임상실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지도교수의 인력이 증가하고 실습지도 교수의 경우 임상연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고시 실기시험제도 도입여부와 이유

국가고시 실기시험제도의 도입여부와 그 이유를 분석한 표는 <Table 5>와 같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찬성은 37명(56.9%)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25명(38.5%)이었고, 둘 다에 응답한 경우가 2명(3.1%),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명(1.5%)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실기시험을 치를 경우 졸업 후 실무적응이 용이할 것이고, 교육과 임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고시에 실기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습평가의 경우 공정한 평가의 문제가 있으며 시험실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3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전문가와 교육전문가에 따른 델파이 조사결과

임상전문가와 교육전문가에 따른 델파이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즉, 임상전문가가 교육전문가보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과 현행 국가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시험관련 대안도 임상전문가가 교육전문가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고시라는 제도를 거치고 있으며 그동안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실의 변화와 대상자의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보건의료전문분야의 노력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일게웠다. 이에 따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 도입타당

<Table 4> Plans directed at resolving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Contents	Result of the 2nd Delphi		Ranking of the 3rd Delphi
	Mean±SD	Ranking	
The examination	3.21±.32		
Make test questions consistent with clinical practice	3.58±.50	1	1
Integrated evaluation	3.38±.52	2	2
Provide test questions in an integrated textbook	3.19±.56	4	3
Develop test questions with clinical experts	3.27±.70	3	4
Examination by computer	2.92±.54	5	4
Inclusion of practical skills test	2.87±.71	6	6
The curriculum	3.39±.42		
Increase of personnel teaching in clinical settings	3.63±.55	1	1
Standardization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3.61±.49	2	2
Mandatory clinical training for clinical instructors	3.58±.59	3	3
Reinforcement of clinical practicum in school	3.50±.56	4	4
Developing of standardized clinical guidelines and evaluation criteria	3.42±.53	5	5
Reflection of results of practicum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2.63±.90	6	6

<Table 5> Perspectives on introduction of practical skills test in national examination

Contents	Result of the 2nd Delphi		Ranking of the 3rd Delphi
	Mean±SD	Frequency(%)	
Agreement		37(56.9)	
Unit managers for education of novice nurse in hospital		25(67.6)	
University professors		5(13.5)	
College professors		7(18.9)	
Reason			
Ease in clinical adaptation	3.38±.55		3 1
Decrease gap between practicum in school and clinical situation	3.37±.69		4 2
Quality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3.35±.63		5 3
Breake from memorizing centered knowledge	3.35±.59		6 4
Improve clinical adaptability	3.24±.68		7 5
Secure settings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school	3.59±.55		1 6
Performance of standardized nursing practice	3.54±.56		2 7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nursing errors	3.14±.79		8 8
Evaluation for clinical competency	3.11±.74		6 9
Decreas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hospital size	2.92±.68		10 10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expertism	2.97±.87		11 11
Prevention of early resignation	2.62±.76		12 12
Disagreement		25(38.5)	
Unit managers for education of novice nurse in hospital		11(50.0)	
University professors		7(31.8)	
College professors		3(13.6)	
Reason			
Problems in fairness of evaluation	3.72±.46		1 1
Difficulty in examination management	3.60±.50		2 2
Shortage of teaching personnel in colleges	3.08±.76		5 3
Training nurses as a simple technicians	2.72±.89		6 4
Difference of training hospital's level for practice	3.52±.59		3 5
Financial problems	3.24±.60		4 6
Decrease of preference for nursing due to overburden	2.56±.77		7 7

<Table 6> Comparison on results between clinical experts and professors

(n=65)

	Problems in practicum		Problem of novice nurses in performing job duties		Problem in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Alternatives in examination		Alternatives in curriculum	
	Mean(SD)	t	Mean(SD)	t	Mean(SD)	t	Mean(SD)	t	Mean(SD)	t
Clinical experts	3.10(.26)		3.11(.38)		3.07(.30)		3.30(.33)		3.46(.36)	
Professors	2.95(.40)	1.70	2.87(.38)	2.34*	2.83(.36)	2.77**	3.06(.25)	2.94**	3.28(.49)	1.68

* p<.05, ** p<.01

성에 관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 임상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은 현 대학의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을 평균 3.04±.33으로 평균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접 실습경험기회의 부족, 임상전담 교수제도의 부재, 학교교육과 임상실제와의 괴리가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임상간호교육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Park, Chung, Jung과 Chung(2002)의 연구에서 대학과 병원의 연계가 부족하고 잦은 실습지 변경과 실습기간이 짧다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Kim, Lee, Kim과 Shin(2005)의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성인간호학 실습 내용이 학교 실습 장소의 특성에 따라 편중된 경향, 다양한 교수방법의 부족, 실습에 도움이 될 만한 역할모델의 부족, 실습지도 교수의 수 부족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임상실습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간호학 실습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간의 차이를 줄이고 다양한 실습경험을 통해 임상 실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임상실습지도자(preceptor) 제도가 대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임상실습지도자들은 학생의 사회

화 촉진자, 역할모델자로서의 역할수행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학생 임상 실습지도를 통해 본인 뿐 아니라 근무하는 병동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였으나 업무부담과 책임감, 동료와의 불편함, 수간호사의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ur et al., 2004). 앞으로 실습 교육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지도 제도를 확대하고 임상실습지도자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상 환경의 조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제안한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은 평균 3.01±.39로 나타났으며 통합적 문제해결능력, 대처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규 임상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실무수행능력에 대한 Byeon 등(2003)의 연구에서도 신규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교과과정이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에는 어려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일부 간호대학의 경우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이론중심의 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학교 교과과정을 마치고 임상에 투여되는 신규간호사가 이론과 실무를 통합해야만 기를 수 있는 통합적 대처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대학에서의 실습교육경험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 임상수행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에 Byeon 등(2003)의 연구에서도 실제 간호업무에서 환자의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경험적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좀 더 심도 있게 문제해결방안에 접근 할 수 있는 임상실습과 과오(error)사례 중심의 문제해결 교육이 현장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선행 연구(Cho, 2005; Yang & Park, 2004)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진단하며,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비판적 사고성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상실습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행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은 전체 평균 2.98±.34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암기 위주의 시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문항의 부족, 문제 해결형 문항의 부족, 임상에서의 활용도 결여, 현 의료상황에 맞지 않는 교과서 위주의 시험문제 출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Suh, Yun, Yoo, Song과 Choi(1996)의 연구에서도 현행 국가고시의 출제문제는 임상관련 문제가 이론문제보다는 2배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의 수준

이 대부분 암기수준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구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국가고시 문항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의 노력이 따라 임상실무와 관련된 문항과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 출제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신규간호사의 기본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임상전문가와 교육전문가는 임상실무와 밀접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통합교과문제의 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관련대안에서 학교에서의 임상실기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실습지도교수의 인력 증가, 실습지도 교수의 경우 임상연수를 의무화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찬성은 37명(56.9%), 반대는 25명(38.5%), 찬성 이유로는 실기시험이 졸업 후 실무 적응이 용이하고 실기시험을 통해 교육과 임상의 격차를 감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간호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50%이상의 전문가에서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고 임상전문가의 경우 교육전문가에 비해 찬성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이는 임상현실에서 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제도의 도입을 찬성하지만 도입에 앞서 임상현실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3.65±.48), 실기시험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3.59±.55) 및 단계적인 능력시험을 실시(3.50±.51)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기간이 필요하다(2.73±.45)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실기시험 도입에 찬성을 하지만 실제적인 도입에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실기시험 방법으로는 기본수행기술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컴퓨터 실기시험을 실시하거나(2.81±.62) 구술시험을 실시(2.84±.65)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나 개별적인 실기시험을 통한 평가의 단점인 소요시간과 인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simulation의 활용에 대한 고려를 나타내었다.

국가고시에 실기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습평가의 경우 평가교수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평가의 문제가 있으며 시험실시의 현실적인 어려움 즉, 장소, 시간, 인력, 예산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3년제 대학의 경우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는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10,000명이상으로 약 3,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도입을 준비하는 의사 국가고시와 비교해 약 3배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준비해야하는 여건임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겠다. 만약 실기시험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안의 마련과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시험실시에 대한 계획마련 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실습지도 인력보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델파이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임상전문가가 교육전문가보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국가고시의 문제점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시험관련 대안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임상에서 실제로 신규간호사를 교육하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상간호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기시험 여부를 떠나 현행 국가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를 참여시키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의 실기시험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로서 1차 조사는 개방식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국 500명상 이상의 병원과 전국의 간호대학에 배부하여 수거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65부를 수거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간호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전문가 5인과 500명상 이상의 3차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임상전문가 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3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거된 결과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및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은 평균 3.04±.33으로 직접실습경험 기회의 부족, 임상전담 교수제도의 부재, 학교교육과 임상실제와의 괴리 등이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신규간호사(입사 1년 미만 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은 평균 3.01±.39로 임상상황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대처 능력, 의사결정 능력 부족, 환자간호기술 및 숙련성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간호사 국가고시의 문제점은 평균 2.98±.34로 암기 위주의 시험이라는 것과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문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가고시 문제점의 해결대안은 평균 3.31±.33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무와 밀접한 시험문제출제, 통합적 평가의 필요, 통합교과문제의 출제, 학교에서의 임상실기 교육 강화, 실습지도교수의 인력 증가, 교수의 임상연수 의무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고시 실기시험제도 도입여부에 찬성은 37명(56.9%), 반대는 25명(38.5%)이었고, 찬성 이유로는 졸업 후 실무적응의 용이, 교육과 임상의 격차 감소의 기회 제공, 간호교육의 질 향상 등이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공정한 평가의 문제, 시험실시의 현실적인 어려움, 교수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야기 등이 나타났다.
- 임상전문가와 교육전문가에 따른 델파이 조사결과 임상전문가의 경우에서 교육전문가보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과 현행 국가고시에 대한 문제점, 시험관련 대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행 국가고시는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위한 실기시험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호수행의 질 뿐 아니라 간호 실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실기시험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이용 등과 같은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D. S. (1997). The medical council of Canada qualifying examination part II. *Korean J Med Educ*, 9(1), 65-71.
- Byeon, Y. S., Lim, N. Y., Kang, H. S., Sung, M. H., Won, J. S., Ko, I. S., Chang, S. O., Jang, H. J., Yang, S. H., & Kim, H. S.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y for new graduate nurs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J Korean Acad Fundam Nurs*, 10(1), 47-56.
- Cho, H. S. (2005). A study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1(2), 222-231.
- Hur, H. K., Choi, S. S., Ahn, Y. H., Lim, Y. M., Shin, Y. H., Park, S. M., Kim, G. Y., Song, H. Y., & Kim, K. K. (2004).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preceptors in clinical education for senior student nurses. *J Korean Acad Nurs*, 34(5), 859-868.
- Kim, B. H., Kim, S. Y. J., Lee, J. S., Tak, Y. R., Kim, H. S., Choi, E. S., Shin, K. R., Choi, K. S., Kim, G. B., Kim, G. J., Lee, S. W., Kim, K. S., Lee, S. J., Kim, Y. H., Lee, K. H., Jeong, Y. S., Song, J. H., & Pak, J. H. (1998). Clinical competency for directing of registered nurses' national examination -Focused on fundamental, medical-surgical, psychiatric, women's health, community, pediatric, and administrative nursing-. *J Korean Acad Nurs*, 28(4), 1075-1087.
- Kim, B. S., Lee, Y. M., Ahn, D. S., & Park, J. Y. (2001). Evaluation of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by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Korean J Med Educ*, 13(2), 289-298.

- Kim, N. C., Lee, H. Y., Kim, B. H., & Shin, K. R. (2005).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clinical practicum for adult health nursing at four-year nursing colleges in Korea. *J Korean Acad Adult Nurs*, 17(5), 831-843.
- Kim, S. H., Lee, D. H., Lee, Y. M., Choi, Y. S., Cho, K. H., & Hong, M. H. (2002). Assessing the clinical competence of family medicine clerkship students using the OSCE. *J Korean Acad Fam Med*, 23(5), 583-592.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Nursing-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3rd ed). Seoul: Soomoonsa
- Lee, M. S., & Kim, S. (1999). Clinical performance evaluation in nursing. *Korean J Nurs Query*, 8(1), 35-59.
- Lee, Y. S. (2005). Executive plan about clinical examination of medical doctor. *An open forum for executive plan about clinical examination of doctor* (pp2-13).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press.
- Park, J. M., Chung, Y. S., Jung, S. E., & Chung, B. Y. (2002). Problems and solving strategies on student evaluation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8(1), 84-94.
- Suh, M. J., Yun, S. N., Yoo, J. S., Song, J. H., & Choi, K. S. (1996). A content analysis of the tes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ration nurses in Korea over 3 years. *J Korean Acad Nurs*, 26(1), 73-93.
- Yang, J. J., & Park, M. Y.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0(2), 271-277.

Delphi Study on Introduction of Practical Skills Test in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Lim, Nan Young¹⁾ · Song, Jung Hee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2) Part-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lan to introduce a practical skills test as par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Method:** The delphi method was used. The first set of data was collected by open questionnaire from universities and hospitals nationally. The second and third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The biggest problem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education was reported as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direct nursing practice. The biggest performance problem in job duties for novice nurses was reported as the lack of integrated problem solving skills in a clinical situation.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current national examination was reported as the use memorizing solutions to test questions. It was suggested that the best plan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national examination would be to develop test questions representative of the clinical setting and increase personnel in clinical educ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a practical skills test as par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56.9% were in agreement and 38.5% disagreed. **Conclusion:** The current national examination has many problems when it comes to testing clinical competency. So, a practical skills test must be deferred to a future time. There are also many difficulties in presenting a real situation,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practical skills test.

Key words : Delphi technique, Nursing licensure, Clinical compet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J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17 Haengdang-Dong, Su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703 Fax: 82-2-2295-2074 E-mail: sjh1994@hanmail.net